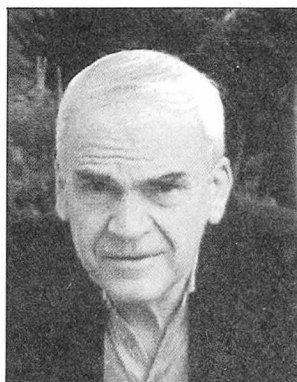


유럽 유명작가·출판사의 새해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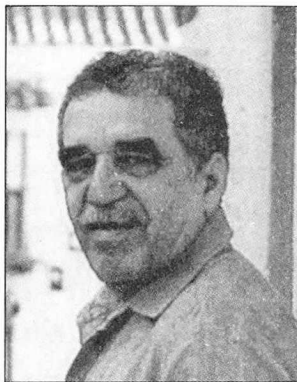
융어 탄생1백주년 기리는 관련서 쏟아질 듯



탄생 1백주년 맞아 기념서 출간이 예상되는 에른스트 융어.



밀란 쿤데라.



가브리엘 가르샤 마르케즈.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 최근호가 유명작가 및 출판사들의 새해설계를 특집기사로 꾸몄다. 갈리마르 출판사와 작가 쿤데라, 마르케즈, 요사의 95년 신작구상을 알아본다.

에른스트 융어

올해는 독일 소설가 겸 수필가 에른스트 융어(1895~1955) 탄생 1백주년인 해이다. 1차대전 전후 독일의 전통적 가치붕괴를 테마로 명작들을 남겼던 융어를 기리기 위해 갈리마르 출판사가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대표작 「모험적인 가슴」(1929년작)을 '뒤 몽드(Du Monde)' 시리즈 중 하나로 출판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융어는 1차세계대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인의 패배감·상실감·소외감 등을 파헤쳤던 작가. 전쟁터의 군인이야기 「강철 폭풍」(1920)으로 이름을 얻기 시작해 「고르디오스의 매듭」 「대리석 절벽위에서」(1939) 등 감성적이고 니힐리즘적인 색채가 강렬한 소설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도 히틀러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 생존당시는 물론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오고 있다.

따라서 갈리마르 출판사의 융어 작품 출간

은 2차대전 후 다소 냉대받던 그의 문학적 위기를 재정립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크리스티앙 부르주아 출판사도 곧 그의 주요작품들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올 한해동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융어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브리엘 가르샤 마르케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가르샤 마르케즈는 카르다고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사랑 그리고 또다른 악마에 관하여」를 준비 중이다. 「백년동안의 고독」 「콜레라 시대의 사랑」 등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갈등과 결합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카살두에로 후작의 딸과 토착민 출신 베르나르다 두 인물의 사랑과 죽음 이야기에 스페인 가톨릭 문화, 인디오 문화,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주술신앙 등이 가미될 계획이어서 또하나의 걸작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페루의 소설가 겸 정치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5백페이지짜리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다. 1900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다가 좌절한 쓰라린 경험, 사생활, 문학에 대한 애정 등을 모두 담아낼 예정이나 요사는 잡지에 일

부 공개한 글에서 “정계에 뛰어들 때 하루에 최소 두시간씩 꼭 책을 읽고 쓰겠다고 혼자 결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웠다”면서 역시 자신이 갈 길은 문학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농담」 등의 작품으로 국내독자들의 인기를 끌어난 체코작가 밀란 쿤데라가 신작으로 「느림」(갈리마르 출판사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한 교수가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겪는 꿈과 현실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쿤데라 작품답게 사건과 장소가 뒤죽박죽 뒤섞여 있고 환상과 실제의 경계도 모호한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베르트, 폰트벵, 체코립스키 교수, 뱀상, 윌리 등 주요 등장인물들의 삶이 서로 엮이려 진행되면서도 하나의 협주곡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쿤데라의 탁월한 글솜씨에 다시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문학과 출판계의 평가이다. 「렉스프레스」誌는 「느림」을 통해 ‘쿤데라의 거장다운 재능’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

지구에 관한 모든 지식 총정리

우주에 떠있는 푸른색 작은 행성,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수십억, 수백억 생명체를 보듬고 있는 지구의 신비와 의미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미국의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9번째 저서로 최근 내놓은 「창백한 푸른색 점」(랜덤하우스판). 우주의 일부인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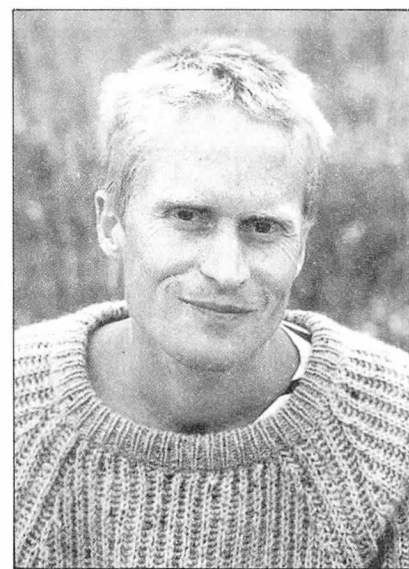
세이건은 90년 미국 인공위성 보이저 2호가 우주 탐사사를 마치기 직전 찍은 지구 사진을 보고 이 책의 집필을 구상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태양계, 수많은 별들, 먼 우주세계와 우주의 끝 등 지금까지 천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지식을 총정리하고 있다. 특히 세이건은 우주 항해의 역사, 온실 효과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의 멸종위험 등을 일반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나 세이건은 비판적이지 않다. 대과국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점이 이 책을 관통하는 특징인 동시에 매력이다. 우주에

서 지구를 향해 광속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계,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의 탐사장비 등은 어린이와 함께 읽으면 더 재미있는 부분이다.

덴마크 스릴러작가의 독특한 소설

덴마크의 젊은 소설가 페터 호에그(37)가 스릴러 소설로 전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93년 황량한 그린란드 풍경을 배경으로 어린이 살해범을 뒤쫓는 여형사의 심리상태를 그린 「스밀라스 센스 오브 스노」(Smilar's Sense of Snow)가 히트하면서 인기작가 대열에 오른 그가 최근 신작으로 「경계인들」(Borderliners)을 내놓아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덴마크의 젊은소설가 페터 호에그.

호에그의 소설은 철학과 서스펜스가 가미된 독특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번 작품도 ‘시간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된다. 話者는 페터란 성인남자. 고아출신으로 구호기관을 전전하다가 14세때 코펜하겐 근교의 특수층 학교 비엘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된 후 겪었던 일들을 회상한다.

처음 입학했을 당시 페터는 다른 학교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음악, 따뜻한 난방, 실력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에 대단히 만족해한다. 그러나 곧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늦거나 규율을 어기면 수갑을 채워 벌을 주는 등 마치 군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페터는 카타리나란 반항적인 성격의 여학생, 신입생 아우구스트와 함께 도대체 왜 학교에서 이처럼 엄격한 규율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그 결과 비엘 아카데미의 교육원칙이 다윈의 '적자생존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어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결국 세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다. 비엘의 교육원리에 따라 강한 인간으로 훈련받은 세사람이 체제의 붕괴를 도모한다는 데 이 작품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 셈이다.

물론 세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트는 죽고 카타리나는 실종된다. 혼자 남아 평범한 가정으로 자리잡은 페터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독백으로 작품은 끝난다. 산다는 것,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스틸있게 끌어내온 페터 호에그의 숨겨진 「경계인들」에서 더욱 농익었다는 게 평론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새롭게 봄 이는 독일의 문고본

독일의 출판전문지 부흐레포트(Buch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독일에서의 전체 도서생산량은 다소 줄어든데 비해 문고판 서적(Taschenbuch)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독일이 통일을 맞이했던 1990년대 이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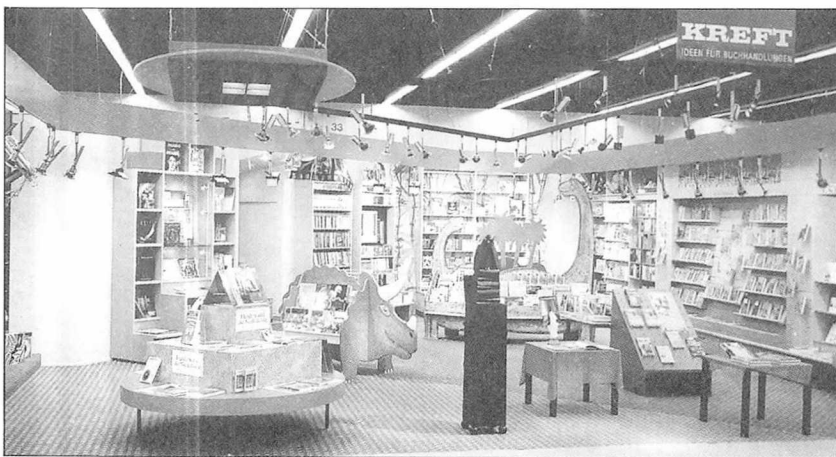
로볼트(Rowohlt), 피셔(Fischer), 크나우어(Knaur) 등과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dtv를 제외한 이들 출판사들은 대부분 단행본을 출간하는 출판그룹에 속해있는 계열사로, 각각의 계열출판사들은 독자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종합출판을 지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다른 출판사들에 비해 30년 안팎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dtv는 뒤늦게 출발한 만큼 새로운 신간 타이틀을 개발해내는 등의 노력으로 급부상한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읽기 쉽고 조금 가벼워진 모습으로 출간된 신간위주의 문고판형 도서들이 선물용으로도 기획되어 눈길을 모았다.

성탄절을 맞아 문고판소설 시리즈로 특별장정하여 출간하기 시작한 골트만 출판사의 출판기획은 이제까지 고급장정의 단행본을 위주로 기획해 오던 하이네와 크나우어, 로볼트, 에콘 등의 대형출판사에서 문고판서적이 지닌 시장 점유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며 잇따라 dtv에서도 시리즈물 기획에 적잖은 투자를 시도하게 되었다.

골트만 출판사는 그밖에도 문고판 서적의 새롭고 혁신적인 이미지의 확보를 위해 지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삼차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매직아이'의 효과를 도입, 고급스런 문고판 서적들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고판 서적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보다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도서 장정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소매가격의 상승은 보다 신중한 출판기획에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들 문고판 서적출판사들은 새로운



지난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때 한 독일출판사의 부스. 문고판도서의 증가가 눈에 띈다.

뚜렷해지기 시작한 문고판서적의 증가추세는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각 출판그룹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실제판매량에 따른 매출고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문고판 서적의 지속적인 판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3대 출판사로 집계된 하이네(Heyne), 골트만(Goldmann), 독일문고판서적출판사(dtv)는 4위 이하의 대형출판사들인

타이틀의 개발은 물론,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방면의 전문서적을 친숙한 문고판형으로 출판해 일반 대중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다양한 매체의 홍수 속에서 문고판 서적이 '읽을만한' 책으로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자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판사들의 기획안 외에도 서적상과 같은 유통업체들의 협조, 그리고 도서를 직접 구입하는 독자들에게도 책임의 몫이 돌아갈 것이다.

마루벌

신사고! 신감각!

토탈 에디터리얼 디자인

저희 마루벌은 단순히 예쁜 인쇄 미디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철저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의뢰된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포된 디자인의 인쇄 미디어 다운 인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마루벌의 의지는 고객이 의뢰한 에디터리얼 디자인의 전과정 · 기획 · 표지 · 편집 · 윤문 · 교열 · 교정 · 홍보 · 광고기획 · 식자 · 제판 · 인쇄 · 코팅 · 제본에 이르기 까지 저희 마루벌의 노하우와 감각 · 치밀성과 · 정확성으로 몇 몇 사람이 선호하는 인쇄 미디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쇄 미디어로 완벽하게 꾸며 드립니다.

인쇄 미디어의 모든 것.

신사고 · 신감각의

마루벌 전문인력과 협의 하십시오.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 |
|--|---|
| 디자인 표지 · 본문 · 광고 · 카디록 등 마케팅 전략에 의한 감각적 · 차별적 디자인! | 편집 단행본 · 사본 · 잡지의 세밀한 편집! |
| · 윤문 · 교열 · 교정 완벽한 문장구성 ·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창조! | · 식자 · 출력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매킨토시 완벽 출력서비스! |
| · 인쇄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 · 고품질 인쇄! | · 제판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 · 원색 제판! |
| · 제작 원고 기획 · 마케팅 · 편집계획 · 광고 등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 · 제본! | · 기획 원고 기획 · 마케팅 · 편집계획 · 광고 등 종합 컨설턴트 |

만족이 있습니다

마루벌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